

어머니 손맛 '강진 묵은지', 지역 대표 특산물 육성한다

매뉴얼 정립·상품성 지속관리·홍보물 제작 등

'맛의 1번지 강진' 관광상품 6차 산업화기반 마련

정성 가득한 어머니 손맛을 담은 '강진 묵은지'가 강진군 대표 특산물로 육성된다.

군은 지난 21일 사업 참여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진 묵은지 산업화 사업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사업참여자 17명은 강진 관내 곳곳

에서 손맛으로 유명한 실력자들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묵은지 산업화 사업 추진현황과 강진 묵은지 사업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군은 이날 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앞으로의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한다는 방

침이다.

군은 지난 4월에 1차 사업참여자 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지원사업 추진, 브랜드 개발용역, 표준 매뉴얼 정립, 홍보물 제작 등을 진행했다.

현재 5개 업체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를 마치고 묵은지를 판매하고 있으며, 12개 업체가 추가로 영업 신고를 해 묵은지를 판매할 예정이다.

앞으로 군은 영업 신고 미등록 업체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을 조속히 추진하고, 준수사항 이행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강진 묵은지의 상품

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강진 묵은지를 '맛의 1번지 강진'의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6차 산업화의 기반 마련을 도모한다.

한편, 전국 인지도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로 묵은지 하면 강진이 떠오를 수 있는 대표 특산물로 육성한다.

이승욱 군수는 "남도의 깊은 손맛을 담은 강진 묵은지를 강진군의 대표 특산물 육성해 전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묵은지 산업화 추진에 더욱 추진력을 내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울돌목 일원 모노레일 건설된다

(주)진도모노레일과 50억원 투자·실시협약 체결



명량해전의 대승을 거두었던 진도군 군내면 울돌목 일원에 모노레일이 건설된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주)진도모노

레일과 총 50억원 규모의 모노레일 건설을 위한 투자·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진도모노레일

황성태 대표와 이동진 진도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약식으로 개최됐다.

진도대교 광장부터 진도타워 상부까지 운행되는 모노레일은 430m의 레일 길이로 50인승 차량 2대, 상·하부 스테이션 등이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진도군 군내면 녹진 관광지에 아름다운 전망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할 진도 모노레일은 울돌목 케이בל카와 더불어 진도군의 관광체험시설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돌목 해상을 거쳐 진도타워와 해남군을 잇는 울돌목 해상케이블카는

총길이 920m구간에 총 사업비 350억원이 투입, 10인승 곤돌라 26대가 운영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녹진 관광지에 해상 케이블카와 함께 모노레일 시설이 추가되어 전남 서남부권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역할이 기대된다"며 "민간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와 진도군과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와 해남 우수영 사이의 협소로인 울돌목은 평균 유속이 10노트(시속 18km)에 이를 정도로 거센 물살로 유명하며,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당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격파한 명량대첩 승전지다.

진도=조성용기자

"장흥에 살아본게 어짜요"

장흥군, 수기공모전 시상 당선작 8편 수기집 발간

장흥군은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정착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장흥에 정착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장흥 정착의 길라잡이'로 활용할 계획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장흥에 살아본게 어짜요?"란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수기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품을 접수 받았다.

군은 내외부의 평가위원을 구성해 5개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대상 1편, 최우수 1편, 우수 2편, 장려 4편 등 총 8편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의 영에는 장흥읍 박미순

씨의 '오십살 젊은 새댁'이 선정돼 100만원의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이 주어졌다.

최우수상에는 송진우(관산읍)의 '도시남을 품은 장흥'을 선정해 60만원을 지급했다.

우수상 2편은 홍석우, 김장규 씨, 장려상 4편은 김경현, 양보람, 서병학, 최슬기 씨를 선정해 각 30만원과 20만원을 지급했다.

당선작품 8편은 126쪽 분량의 수기집으로 발간해 수상자들에게 상금과 함께 배부했다.

정종순 군수는 "공모작 하나하나에 장흥의 맑은 물 푸른 숲의 매력적인 자연환경과 넉넉한 인심이 잘 표현 되었다"고 말했다.

기흥취재본부

완도 해양치유단지 첫 삽 뜨다...해양기후치유센터 착공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운영 다목적홀·탈의실 등 설치



조감도

완도군은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의 일환인 해양기후치유센터를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9일 착공에 들어갔다.

해양기후치유센터는 12억 원을 투입하여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들어서며 명사십리의 청정 환경과 기후를 활용하는 노르딕워킹, 해변 요가 등 다양한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다목적홀, 락커룸, 탈의실 등이 설치된다.

특히 해양치유단지 조성을 위해 처음 착공하는 시설로 완도군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기후치

유센터 착공은 해양치유산업의 첫발을 내딛는 사업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해양치유센터도 연내에 착공하게 될 예정으로 공공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체험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완도군 대표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해양기후치유센터가 건립되면 편의 시설 제공과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완도=김광수기자

강진군, 추석 비상진료대책

강진군은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진료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강진군보건소는 관내 의사회 및 약사회와 협의 하에 추석기간 강진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14개소를 지정했으며,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11개소의 추석연휴기간 비상진료 운영 대책을 수립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강진의료원은 응급실이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의원 4개소, 약국 9개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11개소가 일자별로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소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안내 및 운영현황 파악을 통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